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균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남녀 비교를 중심으로

김 혜 진(가톨릭대 석사과정) · 정 영 금(가톨릭대 교수)
윤 소 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여가·민투센터장)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일-가정 균형 인식과 가정건강성 인식 간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전체 조사대상 4,754명 중 배우자와 동거하며 자녀가 있는 맞벌이를 하는 남녀 1,371명이다.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소득, 학력, 자녀수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근무시간, 근무시간조절가능성, 직장유형, 일에 대한 만족도의 근무환경적 특성, 그리고 가사노동 수행여부, 돌봄노동 수행여부, 가사분담만족도, 돌봄분담 공평성, 자녀의 주된 양육자 여부의 가정환경적 특성, 일-가정에 대한 균형인식, 가정 건강성의 요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17.0의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맞벌이 기혼 남성의 평균연령은 46세로 월소득 200~300만원 미만(32.9%)의 자영업체 및 기타 종사자(33.7%)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여성의 평균연령은 45세로 월소득 200만원 미만(70.3%)의 소기업 종사자(35.7%)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둘째, 제 변인들이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한 결과 남성의 경우, 일-가정 균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월소득, 학력, 자녀수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 근무시간, 직장유형, 일만족도 등의 근무환경적 특성,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분담만족도, 돌봄분담 공평정도, 자녀의 주된 양육자 여부 등의 가정환경적 특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R^2=.261$). 구체적으로 월소득이 높을수록, 초대졸 이상의 집단보다 중졸이하의 집단일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직장유형이 공공기관일수록,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사 및 돌봄노동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에게 돌봄노동의 분담이 공평할수록, 그리고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아닐수록 일-가정균형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직장유형, 일 만족도 등의 근무환경적 특성과 가사노동 수행여부, 가사 및 돌봄노동 분담 만족도, 돌봄분담 공평정도의 가정환경적 특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R^2=.361$). 구체적으로 직장유형이 중소기업 보다는 공공기관일수록,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을 수행할수록, 가사 및 돌봄노동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돌봄노동의 분담이 공평할수록 일-가정 균형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균형 인식과 가정건강성 인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한 결과 일-가정 균형 인식과 가정건강성 인식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일-가정 균형 인식이 높을수록 가정건강성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